

계엄사태에 기약없는 인사...광주·전남 경찰들 속앓이

지휘부 구축에 무기한 연기...지휘관급 인사 지연 여파 연쇄적으로 밀려 총경 승진 예정자 인사 갈증...경정 이하 승진 심사는커녕 시험도 미정 일선 경찰 사기 저하 속 수사 착수·전담팀 구성 지연 등 치안 공백 우려

12·3 비상계엄 이후 경찰 인사가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광주·전남 지역 경찰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인사권자의 부재로 총경 이상 지휘관급 경찰 인사가 지연돼 일선 경찰의 인사도 연쇄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를 앞두고 수사 착수나 특정 수사팀 구성을 미루는 등 치안 공백 등도 우려되고 있다. 3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만난 지역 경찰관들은 "연초 예정됐던 인사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어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경찰이 연관돼 조지호 경

찰장장과 경찰 지휘부 등이 줄줄이 구축되면서 경찰청 인사는 무기한 연기됐다. 일반적으로 통상 경정 이하의 승진·전보인사는 12월 말에 진행되는 총경 이상 인사 발표 후 절차를 진행한다. 승진심사-승진시험-전보 순으로 인사를 한다. 고위급 전보 후 늦어도 설 이후에는 경찰 인사가 마무리 됐지만 올해는 이례적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근무평가 이후 인사 절차가 중단됐다. 심사명부조차 작성되지 않았고 승진시험 날짜는 미정이고 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경은 경찰청장 추천과 행안부 장관 제정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는데, 현재 행안부·경찰청 등은 대행 체제에서 경찰 고위직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 사기도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다. 광주 A경정은 "인사는 성과에 대한 결과물인데, 의욕이 저하되는 건 사실"이라고 푸념했다. 승진을 앞둔 B 경사도 "시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시험을 준비하는 경찰관들도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면서 "일단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자기 할 일 하고 있으라는 지침이 내려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사를 앞두고 주요 사건의 경우 팀을 꾸리거나 수사 착수가 미뤄지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어수선한 업무 분위기를 걱정하고 근무지 변경에 따라 이사 등의 생활 문제를 우려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다. 광주지역 C경정은 "중요 필수 보직이 부재일 경

우 인사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업무를 누군가가 대신 맡아야 해 애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인사에 따라 본인의 주거상황, 자녀 교육 문제가 달라지는데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미정인 상태로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다보니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임을 알면서도 불편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이 지난 2023년 8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경정 이하 시험 승진 비율을 줄이면서 시험 승진 경쟁률 역시 지난해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각 50%로 동등했던 심사승진, 시험승진 비율을 2026년까지 30%로 축소해 따라온 것이다. 총경 승진 예정자들의 인사 갈증은 더욱 크다. 일선 서장 발령을 앞두고 있는 총경급 지역경찰청 참모진 대부분이 정년을 1년 남짓 남겨두고 있어서다. 실제 이들의 6개월 공로연수 기간을 제외하면 남은 기간은 6개월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서장들은 '득'을, 지역 경찰청 참모진들은

'실'을 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은 '계급 정년'을 고려해 정기인사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로 꼽는다. 경찰의 계급 정년은 경정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등이다. 해당 기간 내 승진을 하지 못하면 당연퇴직사유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계엄사태에 경찰이 연관돼 있다보니 인사에 대한 언급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 경찰관들의 말이다. 광주지역 한 경감은 "계엄으로 인해 정국이 뒤숭숭하고 이번 사태에 경찰이 연관돼 있다보니 다들 입밖으로 인사에 대한 말은 차마 꺼내지 못하고 분위기가 답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례브리핑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인사가 미뤄졌다. 법적으로 경정 이하 인사를 3월 안으로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법원 난동 주도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광주 정율성 홍상 2차례 훼손 처벌 전력

이념 맞지 않다면 범행 저질러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선동하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전도사가 광주에서 정율성 홍상을 훼손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소속 전도사 A(56)씨는 2023년 10월 특수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9일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같은해 10월 1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있는 정율성 홍상에 밧줄을 걸고 화물 차로 끌어 쓰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4일 새벽 1시30분께 복원된 홍상을 갈

은 방법으로 다시 넘어뜨리고 아령으로 기단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정율성 홍상이 자신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범행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9일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반발하며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피운 사건 당시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 빨갱이들은 목숨 걸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다북마을 도서관서 다독하세요 3일 광주시 동구 지산2동 마을사랑채 2층에서 독서문화 소통 공간 '다북마을 도서관'이 개관했다. 이곳은 지난 2012년부터 10년간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되다 최근 KB국민은행 후원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새로 문을 열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제주항공 참사 조작됐다' 영상 올린 유튜버 세월호 때도 수백차례 괴담 퍼뜨려 징역형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 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60대 유튜버가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악성 루머를 퍼뜨려 처벌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악성 루머 글을 온라인에 게시해 해경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1등 항

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 등의 글을 635차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A씨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100여차례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31일 부산지법에서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렸지만, A씨는 불출석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활용 수거차에 초등생 사망' 관련자 3명 송치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아파트 관리소장과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재활용품 수거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안전조치 등을 충분히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과 후 귀가하던 초등생 A(7)양은 후진하던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김대인 기자 kdi@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이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파견한 아파트 관리업체의 대표, 사고 차량 운전자를 고용한 재활용품 수거 업체 대표도 부실한 안전관리 여부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사고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김대인 기자 kdi@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달러,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오벌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